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인간의 생애가 기적적으로 길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물을 끓이려고 보면 주전자에는 싱크대의 가장 더러운...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오히려...

기고



전동호 공학박사(도로 및 공항기술사)

요즘 청년들이 어렵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자유, 민주, 정의...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투자를 거듭해도 고용 탄성...

지원 항목도 다양하다. 하지만 혼인, 출산율 향상과 연계된...

비효율의 효율

일을 해내려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할 텐데. 이리다 보면...

나처럼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효율 따위 생각하지 않고...

놀랍게도 겨우 그것뿐이었다. 입을 크게 벌이고 있는...

판단과 편견

마르코 복음 6장에서 예수는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예수의 고향...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청년이여, 전남에서 기회를 찾아라

년기준 15~29세는 현실성조차 없다. 청년이 원하는 '차별과...

세계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유대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랜 '다브카' 전통이다. 실패는 도전했다는 것이고, 거저서...

우리 주변에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다. 누구나 나처럼...

이 걸리기는 했지만 나는 몇 번의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포함해...

"이번에도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군. 순서를 좀 더 생각했으면...

내 친구에게 들은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다. 고된 노동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주문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도달하는...

라고 생각하며 우월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모습은...

"못마땅하게 여기다. 빈축을 사다"는 Escandalizar (에스칸달리자르)...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감각과 생각 그리고...

어떻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수 있을까?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청년 창업·일자리는 다양하다. 주위를 돌아보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도 일자리가 된다. 기초 과학, 디지털...

그 시작을 이긋 전남에서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국토를 더 넓게...

새해 입춘도 지났다. 현동은 가고 청춘이 불어온다. '듣기만 해도...

社說

불법 체류 양산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 손봐야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하지만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그대로여서...

주유소 없어 위험한 기름통 길가에 쌓는 가계도

목포에서 147km 떨어진 신안군 가거도 주민들은 마을 공인...

가거도 주민들은 이처럼 길가에 탱크와 드럼통을 쌓아 놓고...

주민들은 지하 저장 탱크가 없는 탓에 유류 수송선이 섬을...

질·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이런 현실은 사업장 이탈을 부추겨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양산...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의...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위험 물질인 유류 탱크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때마침 전남군과 신안군이 가거도 항만 배후지 지하에 600㎡...

無等鼓

'경쟁이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다.'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들의...

신문에서 편집기자들이 쓰는 제목도 광고 카피와 비슷한...

편집기자들은 카피라이터처럼 많은 조어(造語)를 만들어낸다.

신문에서 조어는 사자성어 등을 기사 내용에 맞게 한자의 음이나...

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송훈민의 '순세이서 널', 타이거 우즈식...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NO'라는 단어를 차용한 조어도...

토티님이 해리 케인의 부상에도 송훈민이 활약해 승승장구하자...

'NO HARRY NO WORRY' (노 해리 노 워리)라는 제목을 쓰기도...

국회가 159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책임을...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